【 해외금융뉴스: 북미 】

미국 손보산업 당기순이익, 1/4분기 13억 달러 적자

□ 2009년 1/4분기 미국 손해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1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, 이는 1986년 이래 1/4분기 실적 중 최악의 결과라고 미국 손해보험요율단체 ISO(Insurance services office)의 관계자는 설명함.

- o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손실과 투자영업이익 감소의 영향으로 악화됐으며 이로 인해 2008년 1/4분기에 6.6%를 기록했던 손해보험산업의 연간화 자기자본이익률은 -1.2%로 떨어짐.
- o 2008년 1/4분기 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던 보험영업손익은 2009년 1/4분기 4배 이상 증가한 2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고 합산비율은 2008년 1/4분기 99.9%에서 2009년 1/4분기 102.2%로 악화됨.
- o 투자영업이익은 2008년 1/4분기 124억 달러에서 69.9% 감소한 3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체 수지를 악화시켰으나 기타이익에서 4억 달러의 흑자가 발생하면서 수지악화를 소폭 상쇄함.
- o 손해보험산업의 지급여력금액은 계약자잉여금(policyholder's surplus)이 4,371억 달러, 지급준비금과 미경과보험료 적립금이 각각 5,544억 달러, 2,015달러를 기록하면서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.

□ 미국 손해보험산업의 수익성 악화는 2009년 1/4분기 경기침체와 주식시장 폭락의 충격을 반영한 결과이나 그 영향은 부문별로 다르게 나타남.

- o 모기지 및 금융보증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보험 부문은 보수적 자산운용, 신중한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.
- o 모기지 및 금융보증 부문을 제외하는 경우 2009년 1/4분기 손해보험산업의 자기자본 이익률은 2.2%(2008년 1/4분기 9.5%), 당기순이익은 24억 달러(2008년 1/4분기 119억 달러)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.

(Insurance Journal, 6/29)